

“정부 핑계 그만” 금속노조, 결단 없는 사용자협의회 규탄

11차 중앙교섭, 사측 6차 제시안 제출 ... 금속최임 10,750원 제시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이끌어왔던 사례를 들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한국사회 노동자들을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정부보다 먼저 제도로 시행한 사례가 많다. 주 40시간제도, 주간 연속 2교대 등 정부의 제도 정책이 아닌 노사 간의 합의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정년연장, 인공지능(AI) 등 올해 법 개정이 된다고 장담 못 한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앞장서서 노사간 협력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협의회는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으나, 사측이 또다시 진전 없는 제시안을 제출함에 따라 노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부했다.

사용자협의회는 6차 제시안을 통해 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으로 10,750원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차 제시안 10,730원보다 불과 20원 오른 금액으로, 올해 중앙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통상시급 11,54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측은 이 외에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와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 정년연장 관련 요구안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기조발언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불만이 많아 보인다"며 "과연 중앙교섭 사업장만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건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근형 회장은 6차 제시안을 설명하며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와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원칙>에 대한 요구는 노사가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며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요구는 축소 교섭에서 논의한다면 해법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정년연장 관련 안은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금속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차가 정년연장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사용자협회가 독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덧붙혔다.

손범국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사용자협회의 요구안 명칭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지부장은 "사측은 18만 조합원의 요구를 모아 어렵게 만든 노조의 안을 제목부터 바꿔버렸다"며 "초기업 교섭을 '산별 교섭'으로, 인공지능(AI) 요구안의 핵심인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를 단순히 '활용에 관한 원칙'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측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다"며 "제시안 제목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조 요구안이 사용자한테 부담되고 어려운 수준이 아닌데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차기 교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근형 회장은 "답답하다. 정년 문제는 과연 사용자협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며 "경기지부장의 의견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2차 교섭은 오는 8월 11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